

# "제주 잠녀 리더십, 서귀포경제 키워드로"

27일 제2차 서귀포CEO포럼  
허정옥 '제주 여성성' 주목

등록 : 2012년 11월 28일 (수) 09:30:12 | 승인 : 2012년 11월 28일 (수) 09:31:27  
최종수정 : 2012년 11월 28일 (수) 09:31:2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27일 서귀포칼호텔에서 '제2차 서귀포CEO포럼'이 열렸다.

환경보전과 산업화의 공존 키워드로 제주 잠녀의 리더십이 제시됐다.

도전·개척·협력·용기·근검 정신을 융합한 제주 잠녀 문화를 기업 활동에 응용하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잠녀 문화 유지를 전제한 융·복합 산업모델도 도출됐다.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회장 양광순) 주최로 27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서귀포 CEO포럼'에서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공유가치 창조와 시대의 리더십' 주제 강연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경영시대를 리드할 모델로 '제주 잠녀'와 여성성을 지목했다.

허 교수는 "서귀포시가 현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도시'를 창조해 내려면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와 녹색성장 산업, 휴양관광산업, 환경문화자산의 브랜드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유의 여성성(性)을 강조했다.

허 교수가 지역 경제 리더들에 주문한 것은 △설문대의 창조 리더십 △자청비의 혁신 리더십 △김만덕의 사회책임 리더십 △제주 여성(잠녀)의 지속경영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역척스럽다'는 이미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주변의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는 경영 전략의 완성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들 제주 이미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허 교수는 "현재 제주잠녀들이 사회환경 변화 외에도 자연 환경 훼손으로 사라지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들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융·복합 산업 모델이 서귀포 경제 부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